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에 대한 논의

- 문학 분야 장서를 중심으로 -

Discussions on the Accessibility of School Library DLS Catalogue Records

- Focused on Literary Collections -

강 봉 속(Bong-Suk Kang)*

정 영 미(Youngmi Jung)**

< 목 차 >

I. 서론	IV.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및 도구	

초 록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이용자에게 자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쉬운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관중별, 이용자별, 장서별 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분류와 목록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이슈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의 중심도구가 되는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을 다루는 이 분야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이용자들의 도서 검색, 특히 문학 분야 도서 검색과 접근에 대한 어려움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DLS의 자료 등록과 이를 통해 생산된 목록레코드의 주제 접근가능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관 장서는 문학 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장서 검색에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목록레코드 작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DLS 검색 기능 역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되었고 학교도서관 목록의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풍부한 주제 색인과 검색키워드 부여가 다수의 의견으로 도출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서 학교도서관 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향후 이용자 연구나, 서가 분류에 대한 새로운 도전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목록 검색 용이성, 주제 색인,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ABSTRACT

One of the fundamental roles of libraries is to provide users with efficient and easy retrieval of material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at domestic and abroa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materials by category, user, and collection, and at the center of this is the issue of improving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syste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in this area dealing with the data accessibility of the DLS catalog, which is a central tool for accessing domestic school library material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ppeal of school library users to the difficulty of searching and accessing books, especially literatur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attempts to derive problems by finding the causes of these difficulties from various aspects. To this study,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library collections, the data registration of the school library support system DLS, the subject accessibility of catalog records produced through this, and the recognition and opinion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As a result, school library collections were highly concentrated in the literature field,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enough catalog bibliographic records to provide efficient access to these collec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o be somewhat lacking through the DLS search function to compensate for this. Surveys of school librarians and librarians have also identified this problem, and a rich topic index and search keyword assignments have been drawn to the majority of opinions as a way to improve access to materials in school library catalogs. As a continuous discussion on this subject, the plan for improving access to school library materials will be more concrete through future user studies and new challenges for bookshelf classification.

Keywords: School library, Book accessibility, Searchable catalogue, Subject index, DLS

* 대구 다사고등학교 사서교사(fineday4u@korea.kr) (제1저자)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mjung@de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539-559,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539]

I. 서론

오늘날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영역이 복합문화적이고 다변화되고 있지만, 도서관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서비스 및 기능은 선별 구축된 장서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과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으로 더욱 견고해진 KDC, DDC, LCC 등과 같은 표준적인 분류시스템과 목록 규칙, 그리고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OPAC이 그 기능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통적인 자료 접근 및 검색 방식은 웹 상의 검색엔진, 온라인 서점 등의 경쟁적인 외부 정보환경과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덜 친숙한 것으로 치부되곤 했다(도태현, 정영미 2013). 국내·외 도서관계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맞춤형 자료의 접근과 검색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 조직과 검색 시스템 개선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에 의하면 국내 학교도서관은 2018년 기준 1관당 장서는 평균 16,103권으로 타 관종의 도서관보다 소규모이고 1관당 직원수가 0.5명에 그치는 등 아직 기반 구축 및 확립 단계에 있다. 그리고 국내 학교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DLS(Digital Library System)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DLS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들이 그들 도서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타 학교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물론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DLS 목록은 도서관 자료 접근의 거의 유일하면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자료 목록 작성의 실상은 외부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의 독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표적 이용자 대비 도서관 이용률 및 도서 대출비율은 높아 서비스 공급보다 수요가 앞서가는 양상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이용자는 타관종 도서관과 비교하여 다양한 인지발달 수준의 어린이와 청소년(교원과 학부모가 포함되긴 하지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자료 접근 및 검색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서비스는 중요하지만 보다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자료 접근성 향상에 관한 이 분야 연구는 학교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어 왔다(백지원 2018; 김성원 2012; 백지원 2011; 오경은, 김기영 2008). 학교도서관 관련해서는 DLS 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들(변우열, 이미화 2017; 노진영, 변우열, 이미화 2014)이 진행된 바 있으나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 중 일부로 다루어졌다.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정확한 저자명이나 서명을 선제적으로 알고 검색하는 이용자(가끔은 이런 경우에도 자료 접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도 있지만 포괄적이고 덜 구조화된 정보 요구로 접근하는 이용자 또한 많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수용하기에 사서

의 지원을 제외하고 오늘날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DLS 목록을 통한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향상에 대한 초기단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분류, 목록, 배가, 검색 시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재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특히 목록의 자료 접근성과 관련하여 문제와 원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문학 분야 장서 비율을 포함한 장서 구축 현황,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 DLS의 자료 등록과 이를 통해 생산된 목록 레코드의 서지정보 입력 실태, 자료 접근성에 대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라우징 측면의 자료 접근성 향상

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도서관 활동 전반에서 수행되어 왔다. 견고한 분류시스템 마련과 목록의 작성, 고도화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 구축, 이용자 요구에 맞춘 별치기호와 컬렉션 코드 사용, 배가 방법, 유연한 북 큐레이션 서비스, 지속적인 자료의 선별과 폐기, 안내표시판과 색색의 레이블(label) 부착 등, 거의 모든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가 이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자료 접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은 정보조직, 즉 분류와 목록에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도서관에서 자료 접근성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많은 연구의 주제 중 하나는 분류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DC(국내는 KDC)나 LCC의 경우 학문분류에 기초한 것으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최적화된 분류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한다(Chiavaroli 2019; Pendergrass 2013).

더군다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분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학습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known-item searching)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보다 막연한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가 브라우징(browsing)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노지현 2010, 152). 오늘날 분류를 통해 서가 브라우징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서관의 주요하게 구현해야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파격적인 공공도서관들은, 기존의 분류시스템에 기반한 도서 분류가 책의 '주제성'에 중심이 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원을 필요로 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성'에 주된 중심을 둔 테마 콜렉션 분류를 제시하기도 한다(백지원 2018, 65). 분류가 브라우징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아닌 이용자 그룹의 측면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자료 접근성에 관한 연구들도 검토하였다. 오영옥과 이미화(2019, 121)는 공공도서관 사서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특성을 적용한 표준 분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자료 이용과 탐색이 용이하지 않으며 분류실무자들도 자료 분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하였다. 특히 문학작품은 주제 분류가 아닌 언어, 형식, 시대 순으로 분류번호가 합성되어 주제 접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목 추가, 장르 구분을 통해 자료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교육부(2016) 보고서 또한 DLS 시스템 상에서 학생들이 신간도서를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정 주제별 추리 소설, 로맨스 소설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8)은 분류기호와 분류항목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 분류지침이나 주기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도 컬렉션 구성과 같은 배가 방식을 활용하여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배가는 이용자의 자료 접근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용성 있는 배가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별치기호 또는 배가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컬렉션 코드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조혜진과 정연경(2018, 79)은 그들의 논문에서 실질적인 대상자 그룹인 중학생들의 기호와 요구를 파악하여 소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설 장르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물리적인 서가뿐만 아니라 가상의 서가인 검색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배가 방식은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능한 브라우징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브라우징 측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분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별치기호와 같은 컬렉션 코드, 배가 기준 마련 등의 배가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검색 측면의 자료 접근성 향상

검색의 측면에서 자료 접근성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풍부한 목록레코드 생산에 의한 이용자 검색의 접근점 확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검색 시스템의 기능 향상에 있다.

노진영, 변우열, 이미화(2014)는 학교도서관에서 생산하는 서지레코드의 표준화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DLS 목록입력 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기사항에서 가능한 주기를 다양화하고, 주기의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접근점 향상을 위해 저자색인에서는 색인어의 올바른 추출을 위해 저자별로 각각 저자명을 독립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주제색인은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되 통제되지 않은 주제어도 입력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노진영, 변우열, 이미화 2014, 21).

그리고 이병기(2009)는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 접근점 중 하나로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 즉, 교육 맥락을 고려한 학교도서관의 목록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 DLS에 추가로 기술해야 할 교육 맥락 요소로 이용자(학생, 교사), 수업 상황(교수방법, 수업목표, 교육과정, 평가방법, 학습집단 편성, 준비물, 수업환경), 자료 내용 유형(성격, 학문분야, 형태), 독서 상황(상황별 독서, 문학 주제), 관련 자료(교사 표현물, 학생 표현물) 등 5개 요소를 제안하였다.

교육부(2016) 보고서에서는 DLS 만족도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검증 프로그램 추가, MARC 입력 포맷 추가, 입력 내용의 체계 디스플레이, 색인 입력 방안 마련, 초록 및 목차의 디스플레이 및 검색, 딸림자료의 검색 관리, 분류번호 유강목 이상의 수준에서 제공, 저자기호 생성 옵션 제공, 수상기록 검색, 이용대상자 주기를 위한 통제어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 검색기능 업그레이드, 연관자료 상호 검색 등이다(교육부 2016, 257-261). 특히 색인 입력 방안을 통한 검색 접근점 향상에서는, 문학 자료의 경우에 문학을 주제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색인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목차 및 초록의 색인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키워드를 기술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 및 공공도서관 검색 시스템과 달리 학교도서관 DLS에 대한 기능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이용자 기반의 DLS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교육부 2016; 이승아 2008). 위에서 제안된 DLS 개선 방안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사서들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료 접근성의 차원에서 DLS를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실태 및 현안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문학 분야 장서 집중 현황, DLS 목록레코드의 검색키워드 및 색인 입력 현황, 그리고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향상에 대한 현장의 상황과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 취합을 위해 전국 사서교사와 학교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은 실시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웹 설문지 링크와 QR 코드를 생성하고 SNS를 통해 이것을 배포하였다. 600명가량의 사서교사가 속한 단체 채팅방,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facebook 게시물, 그리고 교육청 메신저를 통한 설문 참여 독려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설문은 2019년 6월 27일에서 7월 5일까지 약 10일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90명의 소속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34명(37.8%), 중학교와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고등학교가 각각 27명(30.0%), 29명(32.2%)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장서구성 비율과 검색키워드와 색인이 입력된 목록레코드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속 학교급 외에는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응답의 평균차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변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장서의 문학 분야 집중도'와 '목록레코드 현황', 그리고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확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는 자유기술 문항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분석은 SPSS window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등 기초적인 기술 통계량 분석과 소속 학교 변인에 따른 분포 차를 알아보기 위한 일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유기술 문항의 경우 질적 분석을 통해 유사한 내용별로 범주화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영역	번호	설문 문항	
변인	1	소속학교급	
문학 분야 장서 집중도 분석	2	전체 장서량	DLS 통계-관리통계-자료관리-산출단위(년도별) 첫해-2019
	3	문학 분야 장서량	DLS 통계-관리통계-자료분류-산출단위(년도별) 첫해-2019
문학 분야 자료의 목록레코드 분석	4	검색키워드가 작성된 목록레코드 비율	DLS 문학 분야 자료 목록레코드 10개를 무작위 검색하여 전문가모드에서 '검색키워드'가 입력된 비율 응답
	5	색인이 작성된 목록레코드 비율	DLS 문학 분야 자료 목록레코드 10개를 무작위 검색하여 전문가모드에서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이 입력된 비율 응답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에 대한 의견 및 인식	6	자유기술	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생각, 고민, 노력 및 대안 제시 등

둘째, 실질적인 DLS 목록레코드의 검색키워드 및 색인 입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광역시 소재 초·중·고 각 1개교의 학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DLS 목록레코드를 관리자 관점에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방문 조사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의 근무지 소재지 인근 초·중·고 각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문학 장서의 대표 장르인 시, 소설, 수필 중 전수 조사가 가장 용이한 시를 택하여 분류기호 811(한국시) 아래의 DLS 목록레코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키워드와 색인이 입력된 목록레코드의 비율과 실제로 한 목록레코드 내에 입력된 검색키워드와 색인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학교의 전체 장서량과 조사대상 목록레코드 건수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배가 위치 기호의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이용자용 DLS 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표 3>과 같이 제목만으로는 자료의 주제 및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제가 선명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추천도서로 자주 선정되는 문학 분야 장

서 10권을 임의로 선정하여 소장 위치 설정을 분석하였다.

<표 2> 한국시 분야 목록레코드 전수 조사 대상

학교	전체 장서량	한국시 분야 장서량 및 목록레코드 건수
대구 OO초	14,186권	360권/건
대구 OO중	15,009권	198권/건
대구 OO고	14,798권	485권/건
합 계	43,993권	1,043권/건

<표 3> 문학 분야 장서 배가 위치 기호 사용 조사 대상

문학 분야 장서명	목록레코드 건수	소장 학교도서관 수	소장 권수
구름빵	26	273	694
까만 아기 양	34	249	655
나를 보내지 마	17	71	86
노인과 바다	76	81	132
돼지책	130	452	1,681
딸은 좋다	24	68	122
엄마 까투리	12	228	601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33	33	37
원예반 소년들	8	156	273
위저드 베이커리	182	497	1,097
합계	542	2,108(누계)	5,378

셋째, DLS의 관리자 목록 기능 및 관리자 검색 기능과 DLS의 이용자 검색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DLS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와 이용자 모드로 각각 접속하여 문학 분야 자료에 대한 목록과 검색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며 현황을 분석하였다.

IV.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 분석

1. 학교도서관 장서의 문학 분야 집중도

학교도서관 전체 장서 및 문학 분야 집중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학교도서관은 평균 19,563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장서수에 편차가 크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문학 장서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급별 장서량, 문학 분야 장서량 및 문학 분야 장서 비율은 학교급별 변인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평균 장서량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2,454권, 중학교는 17,515권, 고등학교는 18,080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분야 장서량은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많았으며, 문학 분야 장서 비율 역시 초등학교가 48.0%, 중학교가 44.9%, 고등학교가 40.0%의 비율로 문학 분야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균형잡힌 장서 구성을 위해 교육부(2016, 2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분야 장서의 비율인 초등학교 25%, 중학교 27%, 고등학교 25% 또한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즉, 학교도서관의 장서의 절반가량이 문학 분야 장서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분야 장서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곧 전체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문제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분야 장서에 대한 접근성은 비단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부분이다. 문학 분야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분류체계가 주제를 표현하지 않고, 창작물의 특성상 서명과 같은 서지사항 또한 주제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들 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록 및 검색 시스템의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 DLS 목록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분석하였고 다음 절에서 설명하였다.

<표 4>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장서의 문학 분야 집중도

학교급	전체 장서량 (F=6.712**)		문학 분야 장서량 (F=14.205***)		문학 분야 장서 비율 (F=4.34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	22,454권	6,691.90	10,777권	3,615.07	48.0%	10.69
중	17,515권	5,250.06	7,856권	2,498.82	44.9%	8.28
고	18,080권	5,325.88	7,238권	1,919.11	40.0%	8.54
합계	19,563권	6,225.88	8,760권	3,222.57	44.8%	9.69

* p<.05, ** p<.01, *** p<.001

2.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 기능 분석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서는 문학 분야 장서에 대해 KDC 4판에 근거해 언어, 형식, 시대 패킷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이용자가 선호하는 검색키워드와 색인을 적절히 부여하여 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현재 DLS의 자료 등록은 일반모드와 전문가모드의 두 가지 모드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일반모드와 달리 전문가모드의 서지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는 <표 5>와 같이 기본적인 서지 데이터 외에 딸림자료 등록, 분출표목 등록, 관련자료, 검색키워드,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 주기사항, 수상주기, 이용자대상주기 등의 구성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

<표 5> DLS 목록레코드의 구성 항목(전문가 모드)

자료유형	원서명	페이지수	분출표목
기본표목	원저자명	판사항	검색키워드
생물년	발행지	언어	서명색인
본서명	발행처	가격	저자색인
권자	총서명	삽화	주기사항
저자	ISBN	초록/목차	주제색인
부서명	분류기호	표지이미지	수상주기
대등서명	저자기호	탈립자료	이용대상자주기
잡제	크기	관련자료	

서명색인과 주제색인은 200bytes, 저자색인은 100bytes, 주기사항은 1,000bytes의 범위 내에서 입력할 수 있다. 특히 검색키워드는 세미콜론을 추가하여 다수의 검색키워드를 용량의 제한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검색키워드, 주제색인, 서명색인, 저자색인 모두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위한 검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문학 분야 장서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목록레코드의 검색키워드와 색인 입력 현황을 설문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검색키워드의 경우 초등학교는 29.4%, 중학교의 경우 32.2%, 고등학교는 25.9%의 비율로 목록레코드에 하나 이상의 검색키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인은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 항목이 포함되는데 그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데이터가 입력되었다면 색인을 작성한 것으로 취급하여 검색키워드보다는 입력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색인이 작성된 목록레코드는 초등학교가 66.4%, 중학교가 67.4%, 고등학교가 71.3%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즉 검색키워드와 색인 입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목록레코드의 비율이 각각 70.9% 31.7%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6> 문학 분야 장서의 목록레코드 분석

학교급	검색키워드 입력 비율		색인 입력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	29.4%	28.06	66.4%	33.40
중	32.2%	30.42	67.4%	32.77
고	25.9%	33.01	71.3%	32.27
합계	29.1%	30.19	68.3%	32.55

또한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요소로 검색키워드와 색인 항목 입력시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이 존재한다. DLS는 서명에 입력된 단어별로 키워드 색인이 자동 생성되고 저자에 입력된 저자명으로도 모두 검색되고 있어, 이들 검색키워드와 색인 입력의 차별성을 지닌 구체적인 조건과 매뉴얼이 없다면 사서에게는 중복적인 일이 될 것이다(교육부 2016, 155). 실제로

검색키워드나 색인에 다양한 방식과 수준의 기술(description)들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 장서에는 기본적인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용자가 기대하는 접근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장르와 글의 소재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구름빵’이나 ‘돼지책’, ‘창 밖은 오월인데’라는 서명으로는 결코 유추할 수 없는 ‘가족’은 데이터 입력 시 검색키워드나 주제색인 항목의 입력을 통해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3. 문학 분야 장서의 목록레코드 실태 분석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목록레코드에 몇 개의 검색키워드와 색인을 입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키워드 입력 비율을 산출하고, 목록레코드 한 건 당 평균 입력 검색키워드 수와 색인 수를 조사하였다. <표 7>과 같이 세 곳 학교도서관의 검색키워드 입력 비율과 색인 입력 비율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비율인 각각 29.1%, 68.3%와 비슷한 수준인 23.3%, 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레코드 한 건 당 평균 입력 검색키워드 수와 색인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목록레코드 한 건 당 평균 검색키워드 0.7개와 색인 2.3개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인의 항목이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의 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검색키워드와 색인 각 항목 당 부여된 키워드와 색인은 1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학교급별 표본 학교의 한국시(분류기호 811) 장서에 대한 목록레코드 사례 분석

학교	한국시 장서 전수	검색키워드 입력 비율	색인 입력 비율	건 당 검색키워드 평균 입력 개수	건 당 색인 평균 입력 개수
대구 00초	360권	55.6%	69.7%	1.6개	2.3개
대구 00중	198권	9.6%	76.8%	0.3개	3.1개
대구 00고	485권	4.7%	88.7%	0.1개	1.6개
합 계	1,043권	23.3%	78.4%	0.7개	2.3개

그리고 이들 도서관을 대상으로 브라우징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북 큐레이션과 별치 등의 자료 배가 방식 및 배가 위치 기호의 사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전체 학교 도서관 소장 DB를 대상으로 10권의 문학 분야 도서를 선정하여 목록레코드를 조회하였다. 배가 위치 기호의 입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총 5,378권의 해당 문학 분야 장서 중 배가 위치가 설정된 자료 수는 799권으로 14.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문학 분야 장서 배가 위치 사용 분석

문학 분야 장서명	목록레코드 건수	소장 학교도서관 수	소장 권 수	배가 위치 사용 권수	배가 위치 사용 비율
구름빵	26	273	694	124	17.9%
까만 아기 양	34	249	655	87	13.3%
나를 보내지 마	17	71	86	9	10.5%
노인과 바다	76	81	132	10	7.6%
돼지책	130	452	1,681	351	20.9%
딸은 좋다	24	68	122	33	27.0%
엄마 까투리	12	228	601	95	15.8%
우리가 함께 장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33	33	37	4	10.8%
원예반 소년들	8	156	273	7	2.6%
위저드 베이커리	182	497	1,097	79	7.2%
합계	542	2,108(누계)	5,378	799	14.9%

<표 9> 목록레코드 배가 위치 기호 사용 분석 예시('나를 보내지 마')

문학 분야 자료명	목록레코드 번호 (검색결과순)	소장학교	소장권수	배가 위치 기호
나를 보내지 마	1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1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1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1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2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2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8	대구00초등학교	1	T
나를 보내지 마	2	대구00초등학교	1	교
나를 보내지 마	2	대구00초등학교	1	교
나를 보내지 마	1	00고등학교	1	
나를 보내지 마	1	00고등학교	1

이 중 2017 노벨문학상 수상작 영미소설인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의 경우, 검색된 목록레코드는 17건, 소장한 학교도서관 수는 71개교이었으며, 해당 목록레코드 하에 86권의 장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의 목록레코드 아래에 등록된 9권의 자료에만 배가 위치 설정(10.5%)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예시는 <표 9>로 여기의 9권 모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용 자료로 'T', '교'의 배가 위치 기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대상자들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세 수준의 배가 위치 설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실제 문학 분야 장서의 배가 위치 기호 사용은 파악된 배가 위치 사용 비율 14.9%보다 보다 낮을 수 있어, 학교도서관에서는 배가 위치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학교도서관 DLS에서 브라우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유리한 항목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4. DLS의 검색 기능 분석

DLS 검색은 이용자가 접속하는 OPAC 검색과 관리자가 관리자용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는 관리자용 검색으로 나뉜다. 먼저 검색 항목을 비교해보면 이용자용 검색에서는 ‘전체’, ‘자료명’, ‘저자’, ‘출판사’, ‘주제’, ‘ISBN OR ISSN’, ‘KDCN’으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KDC 분류기호에 따라 디렉토리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화면 하단을 구성하고 있다. 관리자용 검색에서는 검색 항목으로 ‘서명’, ‘저자’, ‘출판사’, ‘ISBN OR ISSN’, ‘KDCN’, ‘등록번호’, ‘검색키워드’가 제공된다. 정리하면 ‘전체’, ‘주제’ 검색은 이용자용 검색에서만 가능하고 관리자용 검색에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표 10>과 같이 ‘검색키워드’가 이용자 검색에서는 전체 검색에 포함되어 실행되고 별도의 검색 필드로 분리하여 제공되지 않는 반면, 관리자용 검색에서는 사용가능한 검색 필드로 제공된다.

<표 10> 이용자용과 관리자용 검색 필드

검색 모드	전체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	ISBN 또는 ISSN	KDCN	등록번호	검색 키워드
이용자용	○	○	○	○	○	○	○	×	×
관리자용	×	○	○	○	×	○	○	○	○

이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색키워드와 같이 별도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필드는 검색 화면에서 삭제함으로써 간단하고 쉬운 검색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서지 정보 입력 시 서명, 저자, 주제 등에 포함된 키워드들은 모두 자동으로 색인되고 이것은 전체 검색에서 검색 가능하다.

이것은 두 검색 모드의 띄어쓰기 구분에 의한 검색 차이로도 나타난다. 관리자용 검색은 모든 항목에서 띄어쓰기 구분없이 검색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용 검색에서는 전체검색을 제외하고 띄어쓰기 구분이 적용된다. 서명이나 저자 필드 검색에서 띄어쓰기 구분없는 검색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모든 키워드를 목록레코드 작성 시 서명색인, 저자색인에서 별도 부여해야 한다. 물론 이용자가 전체검색을 통해 검색하는 경우에는 검색키워드가 포함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의 구분없이 검색 가능하다. 즉, 이용자 관점에서 전체 검색이 아닌 구체적인 서명이나 저자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행하는 경우 목록레코드 작성 시 추가적인 서명색인, 저자색인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DLS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 중 절단 검색은 이용자용과 관리자용 검색 모두에서 공통적

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표 11>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도서를 대상으로 절단 검색 성능을 실험한 예시이다. 후방 절단을 통한 전방일치 검색의 경우 전방 어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검색이 잘 되어 검색성능이 우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방 절단을 통한 후방일치 검색은 후방의 어절 단위 검색어가 목록레코드의 서지정보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후방일치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검색어가 레코드 상의 서지정보 중 중간과 일치하는 경우 검색 결과를 돌려주는 부분일치 검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 11> DLS의 절단 검색 기능

검색 구분	어절 단위 완성			어절 단위 미완성		
	전방일치	부분일치	후방일치	전방일치	부분일치	후방일치
이용자용	○	○	○	○	× (검색키워드로 추가 입력 시 ○)	× (검색키워드로 추가 입력 시 ○)
관리자용	○	○	○	○	× (검색키워드로 추가 입력 시 ○)	× (검색키워드로 추가 입력 시 ○)
예시)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쏘아	아울	올린

5. 학교도서관 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의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 대상의 설문 문항에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재 시행 중인 노력,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기술 문항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응답을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록레코드에 접근점 확대 부여, 주제 접근성 향상, 연계를 통한 DLS 목록의 품질 확보, DLS 검색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선,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정보서비스로 극복하는 등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학교도서관이 목록레코드 입력을 외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목록레코드 입력 외주 업체에 목록레코드 품질 확보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포함되었다.

가. 목록레코드에 접근점 확대 부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색인, 검색키워드, 목차 및 초록 등을 입력하여 이용자가 목록레코드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점을 부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주제어 전거까지 한다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도 일부 존재했으나 전거 제어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전담인력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입력하고 있어 서명과 서명색인이, 저자와 저자색인이 중복되어 기술되고 주제색인 또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검색키워드나 색인 항목 입력이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력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명의 단어들로만 검색했을 때 탐색에 어려움이 있는 책들, 예를 들어 단편집은 작품명을 목차 정보에 모두 적고, 검색할 수 있도록 서명을 부출한다. 번역서 저자명은 원저자명을 입력해 접근점을 제공한다.”

“작성한 거의 모든 목록레코드에 색인 혹은 키워드를 입력하려고 노력한다. 장르소설들에는 장르문학/로맨스소설/판타지소설/SF 등의 키워드를 넣으며, 각 키워드가 동일하게 입력될 수 있게 나름의 제어도 하고 있다.”

“주제색인 입력 키워드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기존 데이터에 주제색인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불용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나. 주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학교도서관 DLS 목록에 적합한 주제색인 부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과와 연계된 주제 색인, 장르로 접근 가능한 주제색인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개별 노력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 단위 프로젝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DLS 상에서는 주제어 검색이 안 돼서 활용도가 낮다. 다른 학교 서지를 불러오면 제목을 단어로 분절해놓거나 형식을 주제어로 적은 게 많다. 많이 나오는 주제어 정도는 시스템 자체에서 미리 나열하여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마지막에 기타 칸으로 주제어를 자유롭게 적게 하고 DLS에서 주제어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목록레코드 입력 시에 교과 분석 후 교과 관련 주제어 입력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표준화된 교과 연계 주제어를 구축해두어야 한다.”

“학년별 권장 또는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주제, 키워드 목록을 알고 싶다.”

“문학의 경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학교도서관에도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 학생들이 "추리소설 어디있어요? 혹은 연애소설 어디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학의 경우 형식이나 언어별 분류보다 내용별 분류법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단위 학교도서관을 넘어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 연계를 통한 DLS 목록의 품질 확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특징 상 좀 더 세밀한 목록 작성과 품질 확보는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1인 사서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목록 작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DLS 목록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도서관 단위를 벗어난 큰 규모 도서관 목록과의 연계나

학교도서관 간의 연계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하나의 강력한 품질을 지닌 목록레코드를 DLS 센터와 같은 대표 기관에서 작성하고, 단위 학교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정보만을 추가로 입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오입력되는 자료들이 매우 많고, 일일이 다 찾아 수정하긴 어렵다. DLS 내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공동 목록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면 좋을 듯하다.”

“DLS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키워드를 입력해 줄 수는 없을까? 공공 도서관이나 정식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혹은 새로 구입한 도서들이 거의 모든 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들이랑 중복되지 않나 생각된다.”

“DLS를 관리하는 KERIS에서 ISBN을 중심으로 검색키워드 내지 색인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국중 MARC를 보며 보충하려고 하지만 국중에서도 잘 채워져 있지 않은 서지들이 많다. 그래도 국중 데이터를 학교도서관에 연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 DLS 검색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선

DLS 검색 기능은 타 관중 도서관이나 기타 웹 플랫폼의 검색 기능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검색 기능과 이용자 편의의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특히 띄어쓰기 오류에 의해 검색되지 않는 것, 정확한 서명을 입력해야 하는 등의 검색의 불편함을 다수 제기하였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결과내 검색, 유사도서 추천 검색, 분류에 의한 브라우징 기능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 자료 탐색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른 관중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명에 따라 검색키워드와 주제는 자동으로 설정되면 좋을 것 같고 서명색인사항도 띄어쓰기나 콤마 그리고 숫자 등은 혼동이 있기 쉬운 부분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사소하고 잦은 검색 실수는 자동변환되어 검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DLS상에 인터넷의 검색창과 같이 관련어, 연관 검색어도 같이 검색이 되면 교과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찾는 도서와 같은 분류기호를 갖는 도서가 검색 결과에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자료 검색 시 서점 검색과 같이 유사도서 검색 등도 되었으면 한다. 검색엔진의 책 검색과 같이 본문 검색 기능까지 도입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목차 검색은 필요하다.”

더불어 타 관중 도서관의 홈페이지나 플랫폼과 같이 이용자 참여 태그 등의 이용자 참여 기능을 통한 자료 접근성 확대 방안도 제시되었다.

“풍부하고 자세한 검색키워드 및 색인 입력이 필요하며, 이용자 태그 도입이 필요하다.”

“해시태그를 학생들이 달 수 있도록 하자.”

마. DLS 목록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정보서비스로 보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을 보완하거나 정보 검색 능력이 취약한 학생 이용자를 위해 주제별 도서 목록을 다양하게 작성해서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별치하거나, 독서상담, 참고질문 등 학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DLS 목록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접근성 부족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의 주제별 목록을 다양하게 정리해서 보관중이다. 학생들이 검색하고 실제 찾는 것보다 사서교사에게 물어보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인문계고 특성상 학생들이 문학의 주제별 혹은 진로별 도서를 찾는 경우가 많아 목록 보다 실제 접근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서를 다양한 서가에 배치해두려 한다.”

“학생과 독서상담을 통해 책을 소개한다.”

“서가 사인시스템 안내, 인문고전 및 진로도서 별치기호 부여 및 별도 서가 운영을 통해 자료에 학생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대출 통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를 분류하여 별도의 서가에 비치하고 있으며,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이 전xx권으로 되어있는 도서는 그 중 한 두권(ex 2,7)을 따로 원 서가에 일부러 비치한다.”

바. 외주 업체 입력 목록레코드의 품질 검수 노력

인력 부족 등으로 학교도서관 목록레코드는 외주 업체를 통해 입력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

다. 이러한 경우 직접 목록레코드 생산 환경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외주 업체에 목록레코드 입력을 요구할 때 뚜렷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 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서지 입력을 외주로 주고 색인 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 없다.”

“도서 등록 작업을 외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관에 맞는 분류번호, 키워드를 주기 힘들다. 업체에서 1차 마크 등록 후 분류번호, 키워드를 사서가 확인한 후 장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서 구입 시 업체에 키워드 입력 조건을 넣어 계약을 진행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이 제기해온 문학 분야 장서로의 접근, 특히 DLS 목록 검색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에 대한 실체를 다양한 방향에서 탐색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견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문학 분야 장서의 현황, DLS 목록의 레코드 구성 항목과 실제 사용 현황, DLS 검색 기능 분석, 그리고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견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문학 분야 장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장서 중 문학 분야 장서는 초등학교가 48.0%, 중학교가 44.9%, 고등학교가 40.0%로 나타났다. 즉, 모든 급의 학교도서관의 문학 분야 장서가 학교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학 분야 장서의 집중도는 실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LS의 목록레코드의 구성 항목은 기본적인 서지정보 외에도 딸림자료 등록, 분출표목 등록, 관련자료, 검색키워드,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 주기사항, 수상주기, 이용자대상주기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제 목록레코드 중 검색키워드가 입력된 레코드의 비율은 29.1%,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을 통틀어 색인이 입력된 비율은 68.3%로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입력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효용성 있는 검색키워드와 색인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셋째, 소장 집중도가 높은 주제인 문학 분야 장서에 대해 목록레코드 상에서 배가 위치 설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가 위치가 설정된 레코드의 비율은 14.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학교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북큐레이션이나 주제별 별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가 위치 설정을 목록레코드에까지 연동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DLS의 검색 기능을 통한 자료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용과 관리자용 검색 모드 각각에서 제공되는 검색 필드 및 검색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용자용 검색모드에서는 ‘전체’ 검색 외에는 ‘검색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고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수정 검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단검색의 경우는 어절 단위 완전 일치와 이루어진 검색어에 대해서는 검색결과를 출력하지만, 어절 단위가 미완성된 검색어의 경우 부분일치와 후방일치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자료의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록레코드에 접근점 확대 부여, 주제 접근성 향상, 연계를 통한 DLS 목록의 품질 확보, DLS 검색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선,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정보서비스로 보완하는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목록레코드 입력을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록레코드 품질 검수 과정을 통한 품질 확보 방안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DLS 목록의 자료 접근성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시각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방안을 탐색적으로 도출해보았다. 여기에는 개인 전담인력 차원, 학교도서관계 차원, 국가적인 차원의 포괄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안들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 문학 분야 장서에 대한 이용자 기반의 목록 작성 및 접근성 향상 방안은 이용자 정보 검색 행태에 대한 실험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장서관리지침(자료 선정 기준 포함)연구』. 충남: 공주대학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8. 『어린이도서 분류 체계 개선 방안』.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김성원. 2012.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7-78.
-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70.
- 노진영, 변우열, 이미화. 2014. 학교도서관 DLS의 목록입력 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5-23.
- 도태현, 정영미. 2013.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OPAC 기능 채택과 확산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지』, 44(2): 197-215.
- 백지원. 2011.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조직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1): 171-193.
- 백지원. 2018.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1-69.
- 변우열, 이미화. 2017.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1-50.
- 오경은, 김기영. 2008.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4): 25-42.
- 오영옥, 이미화. 2019. 어린이도서 분류를 위한 KDC 6판 개선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05-124.
- 이병기. 2009.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학교도서관 목록 정보의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85-100.
- 이승아. 2008.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혜진, 정연경. 2018. 중학생의 소셜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셜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1): 61-82.
- Chiavaroli, M. 2019. "Ditching Dewey: Take Your Collections from Enraging to Engaging and Position Your Library for 21st Century Success." *Public Library Quarterly*, 38(2): 124-146.
- Cooper L. 1997. "The Retrieval of Information in an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 *Public & Access Services Quarterly*, 2(3): 1-24.
- Pendergrass, D. J. 2013. "Dewey or don't we?" *Knowledge Quest*, 42(2): 56-59.
- Fagan, J. C. 2010. "Usability Studies of Faceted Browsing: A Literature Review."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9(2): 58-66.
- Joseph K. 2019. "Wikipedia Knows the Value of What the Library Catalog Forget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7(2-3): 166-183.
- Naun C. C. 2010. "Next Generation OPACs: A Cataloging Viewpoi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8(4): 330-342.
- Petruciani A. 2015 "Quality of Library Catalogs and Value of (Good) Catalo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3(3-4): 303-313.
- Stohn, C. 2015. "How Do Users Search and Discover?: Findings from Ex Libris User Research." Jerusalem: EX Libris [online]. [cited 2019.6.26]. <https://knowledge.exlibrisgroup.com/@api/deki/files/39501/How_Do_Users_Search_and_Discover_Ex_Libris_White_Paper.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2011. "Study on Construction of Subject Headings for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171-193.
- Baek, ji-won. 2018.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 Collection: Focusing on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51-69.
- Byun, Woo Yeoul and Lee, Mihwa.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gital Library System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31-50.
- Cho, Hye chon and Chung, YeonKyoung. 2018. "A Study on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Enhance to Access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61-82.
- Doh, Tae Hyeon and Jung, Youngmi. 2013. "A Study on the Next Generation OPAC Functionalities Diffusion Status and Adoption by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97-215.
- Kim, Sungwon. 2012. "A Research on Close Classification for Korean Fiction in KDC : Focusing o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57-78.
- Lee, Byeong-Ki. 2009. "Study on the Expansion of School Library Catalog Considering Educational Contex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85-100.
- Lee, Seung-ah. 2008. User Satisfaction of the DLS. M. A.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6. A Study on Collection Management Status and Guidelines of School Libraries (Including Selection Criteria). Chungnam: Kongju National University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Book Classification System*.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Noh, Jin-Young, Byun, Woo-Yeol and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Amendment

- of DLS Cataloging Rul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5-23.
- Oh, Kyong-Eun and Kim, Giyeong. 2008. “A Study on the Convenience in Finding Books According to Classifications: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s in Public Libraries and Booksto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4): 25-42.
- Oh, Young-ok and Lee, Mihwa.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KDC 6th ed. for Classifying the Children's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05-124.
- Rho, Jee-Hyun. 2010. “The Meanings of Genre Classificat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 The Cas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51-170.

